

William C. Kirby, *Empires of Ideas: Creating the Modern University from Germany to America to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22. 504 pp.

강기찬†

연구 대학의 성장과 국가 권력의 관계: 독일에서 미국, 중국으로

윌리엄 C. 커비의 *Empires of Ideas*는 고등교육의 진화에 대한 연구로서 독일, 미국, 중국을 아우르는 설득력 있는 서사를 제시한다. 그는 독일과 미국의 저명한 대학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 대학이 어떻게 각각의 특징을 갖추었고 어떠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조명한다. 또한 그는 미국과 유럽의 최고 교육 기관과 경쟁하기 위해 국제적 우수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 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독일에서 시작된 연구 대학 모델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다시 중국에서 구현되어 성장하는 과정을 정치적·사회적 맥락과 국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보여 준다.

이 책의 제목이 *Empires of Ideas*인 이유는 아마도 커비가 학계와 정치 권력의 융합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대학의 세계가 정치와 매우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세계는 권력 정치(power politics)나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여러 영향력 있는 연구에서 유독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연구 대학의 모델이 된 독일의 베를린 대학도 전쟁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사립대학이 되었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중국의 칭화 대학 역시 졸업생을 미국으로 보냄으로써 미국과 중국을 가깝게 결속한다는 대외 정책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

†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mugenkc@nate.com

제는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통해 중국의 성장과 국제적 권위 상승에 기여하는 등 대학이 국가나 권력,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권력 정치 혹은 국가에 대한 연구의 색인에서 **education**이라는 단어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2). 커비는 청나라나 영국, 프랑스 등 지난 3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정치 및 경제 강국들은 학문(scholarship)과 학습(learning)의 강력한 리더였음을 언급하고, 교육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흥망성쇠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이 지적 담론과 사회적 진보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3). 그는 독일, 미국, 중국에서 대학이 국가 정체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데 핵심이었음을 보이기 위해 이들 국가의 대학이 설립 단계부터 오늘날의 명성을 얻기까지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한 것이다.

커비는 대학 중에서도 특히 “연구 대학(research university)”으로 알려진 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가 다른 형태의 대학에 비해 연구 대학이 국가의 성장과 권력 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Empires of Ideas*는 19세기 독일의 연구 대학을 시작으로 미국, 그리고 중국의 대학의 역사를 다룬다. 이는 19세기에 독일에서 등장한 연구 대학이라는 모델이 20세기 미국의 국제적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다시 중국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연구 대학 모델의 연대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과 미국의 대학에 대한 연구는 사실 중국 대학의 기원과 중국 굴기(屈起)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커비는 특히 21세기의 미국 대학과 중국 대학에 대해 서술하면서 미국 대학들과 중국 대학들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중국 대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중국 대학의 성장이 중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국가와 대학 간의 경쟁의 역학 관계를 탐구하는 한편 국제적 교육 리더십의 변화가 국제 관계, 경제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에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이러한 방향성은 윌리엄 커비가 중국 학자로서 하버드와 수십 년간 맺어 온 인연, 독일에서의 유학 경험, 중국과 미국의 대학 간 교류에 직접 참여한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mpires of Ideas*는 독일, 미국, 중국 등 세 나라의 역사적 개요를 살펴본 후 구체적인 각 나라의 사례를 다루면서 대학과 국가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는 독일에서는 베를린 대학과 그 후신인 베를린 훔볼트 대학, 그리고 독일의 분단 이후 서독에서 세운 베를린 자유대학을 주로 살피고,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과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듀크 대학에 주목했다. 중국 대학 중에서는 칭화 대학, 난징 대학, 그리고 홍콩 대학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그는 각 대학의 역사를 살피고, 그 속에서 각 대학의 성장을 추동한 거버넌스와 리더십, 그리고 자금 확보 및 유통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다룬다.

대학 선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듀크대가 미국의 주요 기관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듀크대의 경우 베를린이나 하버드와 달리 기존의 연구 대학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않았다. 미국 대학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이 주로 주목을 받았고, 듀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¹ 이와 달리, 첫째로 연구 대학으로서 듀크대의 약진이 주로 2004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째로는 21세기의 듀크대가 해외로의 확장을 꾀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커비의 주목을 받았을 수 있다. 커비에 의하면 듀크대는 예일대에서 학장을 지낸 리처드 브로드헤드(Richard H. Brodhead)가 2004년 총장직을 맡으면서 브로드헤드와 부총장 피터 랑게(Peter Lange)의 활약으로 연구 대학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야심찬 듀크대의 행보로서 커비는 듀크대와 해외 대학과의 협력에 주목한 바 있는데,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과의 협력으로 듀크-NUS 의대(Duke-NUS Medical School)가 2005년 만들어졌고, 중국의 우한 대학과 2011년에 맺은 제휴의 결과로 듀크 쿤산 대학(Duke Kunshan University, DKU)가 설립되었다(204, 227-228). 듀크대의 사례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미국 대학에 대한 서술에서 21세기 중국에 대한 서술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장치로 보이기도 한다.

커비는 결론 부분에서 중국 대학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중국 대학이

¹ 미국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를 다년간 수행한 가이저나 클라크의 연구를 예로 들면, 듀크의 전신인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가 잠깐 언급되거나 아예 듀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oger L. Geiger, *Research & Relevant Knowledge: American Research Universities Since World War I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Roger L. Geiger, *The History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Learning and Culture from the Founding to World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Burton R. Clark, *Places of Inquiry: Research and Advanced Education in Modern Univers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과연 세계의 대학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는 8년 전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커비가 가지고 있었던 연구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커비는 두 가지 면에 주목한다. 첫째는 “중국적 특성(Chinese characteristic)”을 지닌 대학 혹은 “중국 대학 모델”의 존재 여부이다(392). 그는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중국 대학의 특징이라면 국제적인 고등교육 및 연구 시스템의 일부로 성장해 온 과정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고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치 독일과 영국 기관을 따라함으로써 미국의 대학이 성장하고 유명해진 것처럼, 중국 대학은 유럽, 미국, 소련 등 다른 국제적 리더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거버넌스를 예로 들자면,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모델”은 사실 공산권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커비는 이를 동독의 훔볼트 대학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46-47, 393). 또한 칭화 대학이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모습 역시 하버드와 같은 미국 대학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두 번째는 중국 대학이 세계 학계를 선도하기 위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외부와의 경쟁에 있지 않고 국내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커비가 중국 학자들과 사적으로 대화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바로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논쟁을 제한한다. 이는 중국 학자가 학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즉, 커비는 중국공산당의 견제가 중국 대학의 성장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대학이 21세기의 국제 표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맡지 못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는 국제 협력을 통해 중국 대학은 충분히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395).

*Empires of Ideas*는 고등교육의 역사적 진화와 국가 정체성 및 국제적 영향력 형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설득력 있는 책이다. 커비는 이 책을 통해 독일과 미국 대학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독일의 훔볼트 대학으로부터 시작된 연구 대학 모델의 형태와 이상이 형성되고 구체화되면서 독일과 미국의 성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것이 중국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중국의 성장에 기여하는 모습 역시 흥미롭게 서술해 냈다.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대학이라는 기관을 통해 주목한다는 점에서, 또 중국 대학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